



아베크 반려동물 세균 제거기 '펫 헬스케어러'

# “매일 안 씻겨도 반려견 털 속 미세먼지 해결”

대우전자 시스템사업부문 임원, 귀뚜라미그룹 에어컨 총괄본부장, 국내 최초 개인과기업 간 거래(B2C) 렌터카 회사 코리아네트워크 설립 후 엑시트(투자자금 회수)...

지난해 8월 설립된 신생회사 아베크의 천경호 대표 이력이다. 화려하게 성공을 거머쥔 뒤 난대없이 반려동물산업에 뛰어든 건 10년간 키운 반려견 때문이었다. 천 대표는 “다음 사업을 구상하느라 한창 고심 중에 산책 후 돌아온 강아지와 아이들이 샤워도 안 하고 몸을 비비며 노는 모습을 봤다”며 “반려견 털에 붙어있는 수많은 미세먼지가 세균을 손쉽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 ◆국내 최초 반려동물 살균기

반려견은 매일 산책시켜야 하는 동물이다. 그러나 매일 샤워시킬 순 없다. 너무 자주 목욕시키면 건조증 같은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 대표는 “그렇다고 목욕을 게을리하면 곰팡이와 진드기, 집먼지 때문에 피부병이 발생한다”며 “반려동물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 1순위는 피부부”라고 말했다.

반려견 몸에 붙어있는 먼지를 털어내는 세균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천 대표는 에어컨의 공조 기술을 적용했다. 16년간 에어컨 회사에서 일하면서 습득한 기술이다. 천 대표는 “좌우에서 들어온 바람이 바닥을 한 번 때리고 위로 올라오도록 설계했다”며 “반려견의 털과 털 사이에



천경호 대표가 서울 삼성동 아베크 사무실에서 반려동물 세균 제거기 '펫 헬스케어러'를 시연해 보이고 있다.

### 아베크 개요

설립	2017년 8월
위치	서울 삼성동
제품	펫 헬스케어러
특징	반려동물 털에 붙어있는 각종 먼지와 세균 살균 제거

16년 배운 에어컨 공조기술로 털 사이 공기층 만들어 세균 흡입 빨아들인 세균은 UV램프로 제거

### 2021년 코스닥 상장 목표

공기층을 만들어 먼지를 쉽게 떨어낸다”고 설명했다. 그는 “드라이기로 털을 털어주면 직사 광선이 오려 털을 털어버려 털 사이사이 먼지를 깨끗하게 떨어내

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떨어진 먼지는 정적된 4개의 필터에 포집된다. 천 대표는 “0.3μm(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바이러스까지 잡아낼 수 있는 헤파필터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필터 뒤쪽에 장착된 자외선(UV)램프는 포집된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역할을 한다. 천 대표는 “‘케어러’ 안에 대장균,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들어있는 캡슐을 넣고 실험한 결과 99.9% 살균했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펫 헬스케어러 장치에 살균 시스템이 적용된 건 국내 최초”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펫 종합가전회사로 키울 것” 제품을 개발할 때 수의사들의 조언도 참고했다. 천 대표는 “기기 안에 반려견이 들어가 있는 시간이 최대한 짧아야 하고 온도는 40도를 넘어서 안 된다는 조언이 있었다”며 “최대 20분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시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 (sjlee@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10~11월 으뜸중기 제품 △스코드-스마트 블루투스 헤드셋 웨드류 △코야드-스피드도어 △성원제이엑스-철재선반 원더랙물러스 △핏핏-어헤드 반려동물 소변검사키트 △동양애스앤드-무동력음이온공기정화기 △가이연구소-이드베 일회용 침반이 원데이비스 △다인스-발 각질제거기 트리케어 △아베크-펫 헬스케어러

판되기 시작한 이 제품은 벌써 700대가 넘게 팔렸다. 천 대표는 “올해 안에 20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천 대표는 아베크를 ‘반려동물 털 제거’로 시작하진 않거나 ‘반려동물 종합 가전 전문 브랜드’로 키우고 싶다고 했다. 이를 위해 최근 회사 내부에 ‘공간케어연구소’를 설립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허가를 받았다. 그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같이 사는 공간을 케어하는 모든 생활 가전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쇼인 CES의 출품 승인도 받았다. 천 대표는 “수출에 성공해 내년엔 176억원, 2020년엔 370억원의 매출을 올려 2021년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 전기자극 대신 가상현실 활용 난치성 알코올 중독환자 치료



### 김석민 메딕션 대표

알코올 중독환자가 메딕션의 ‘미라클’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MD)’를 쓰면 잔에 소주를 따르는 장면과 함께 고통스럽게 구토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를 반복적으로 보면 환자는 술을 보기만 해도 거부반응을 일으킨다. 가상현실(VR)을 활용해 중독을 치료하는 원리다.

김석민 메딕션 대표(사진)는 “병·의원에서 하던 중독진단과 치료는 설문, 상담, 약물 중심이기 때문에 재발률이 높다”며 “이를 보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메딕션 연구팀과 미국 하버드대 의대 연구팀은 2009년 “VR이 중독 환자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것을 검증했다. 이후 바로 제품 개발에 나섰다. 김 대표는 “5년간 연구 끝에 국제적 과학기술 협력확실장 등을 지난 2013년 이 회사에 합류했다. 같은 해 메딕션의 첫 제품인 미라클을 내놨다. 김 대표는 “한빛소프트에 있을 때 처음 HMD를 접하고 VR 사업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했다.

그는 “5년간 연구 끝에 국제적 과학기술(SCI) 논문 3편을 쓰고 800여 건의 임상시험 등을 하면서 제품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미라클은 중독 환자의 혐오 치료 방식을 적용한 소프트웨어다. 이전에는 전기자극으로 혐오감을 줬다. 의사와 환자가 치료를 꺼린 이유다. 이를 VR로 대체한



뒤 8개 병원에서 기기를 설치해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생체신호를 파악해 중독 정도를 평가하는 시스템(M3700)도 개발했다. 환자가 중독 물질을 볼 때 나타나는 뇌파, 심박 수, 피부 전기 저항도(GSR) 등을 측정해 중독 물질에 대한 충동 정도를 정량적으로 보여준다. 중독을 평가·진단하고 치료하는 두 기술을 융합한 메딕션 S 개발도 마무리 단계다. 의료기기 허가를 위해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

메딕션은 지난 1월 전국 11개 보호관찰소에 알코올 중독 범죄자 치료에 쓰이는 VR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지난달 도로교통공단과 VR 기반 교통안전 교육 콘텐츠 납품 계약을 맺었다. 내년에는 뇌파와 맥박을 함께 측정하는 기기를 양산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뇌파로 정신질환을 진단·치료하는 뉴로테크놀로지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직무스트레스를 진단하고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덴마크 컨설팅 회사, 중앙대병원 등과 함께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유기 기자 freeu@hankyung.com

## “커뮤니티형 창업공간이 낙후지역 살린다”

### 중소기업연구원 발표

프랑스 파리의 창업공간 ‘스타시용 에프(Station F)’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낙후된 철도부지였다. 지난해 창업자와 지원기관이 함께 입주하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의 경쟁률이 10 대 1에 달했다. 도시 재생도 함께 이뤄져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타시용 에프가 일터와 휴식 주거 기능을 아우른 커뮤니티형 창업공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11일 발표했다. 스타시용 에프는 프랑스 기업이 자비에르 니엘이 파리 옛 철도부지에 ‘모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생태계를 한 지붕 아래’라는 개념으로 설립한 공간이다. 창업자들의 공동일터일 뿐 아니라 지원기관과

휴식공간, 주거시설까지 아우르는 ‘공동 삶터’로 기획했다. 창업기업을 선발한 뒤 멘토링이나 코칭 없이 창업기업들이 스스로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논점을 끈다. 박 연구위원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업자 간 끈끈한 커뮤니티가 형성돼 긍정적 시너지가 나온다고 봤다.

창업자 중 프랑스인은 67%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해외 지원자여서 다양성도 갖췄다는 평가다. 박 연구위원은 “경기 판교창업존이 나서울창업허브 같은 국내 밀집형 창업공간은 스타시용 에프와 비교하면 도시 재생과 다양성 면에서 부족하다”며 “낙후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타시용 에프 모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 “재기할 수 있는 힘은 결국 내 자신에게 있었죠”

### ‘2018 재도전의 날’ 행사 재기 성공한 기업인 수기 발표

“회삿돈을 횡령한 관리부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집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지만 못 만났다. 절망에 극단적인 생각도 수백 번 했다. 다시 일어설 힘은 결국 자신에게 있다는 걸 깨닫는데 4년이 넘게 걸렸다.”

이희장 셀링크 대표는 2010년 겨울을 평생 잊지 못한다. 연구개발에 몰두하기 위해 관리부자에게 인감도장과 통장을 맡긴 게 화근이었다. 1997년 설립한 회사(신원기계부품)가 갑자기 파산

하며 10억원이 넘는 채무를 떠안았다. 이 대표는 믿음에 대한 배신으로 절망에 빠져 술에 의존하면서 시간을 낭비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기업인을 위한 재기 캠프와 창업지원프로그램 등을 들으면서 마음을 다잡았다”며 “결국 사람 관리와 회사 운영을 소홀히 한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2014년 설립한 셀링크는 유통유 없어도 작동하는 반도체용 회전축 장비를 개발해 포스코, 삼성 등과 거래하는 회사로 성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진흥원 등과 지난 10월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2018 재도전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 대

표는 ‘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

사전 행사로는 재창업 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유통채널 상품기획자(MD) 상담과 투자설명회(IR) 등이 열렸다. 22개의 중소기업이 대기업 유통사 및 홈쇼핑 MD와 상담을 했다. 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은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인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늘려야 한다”며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 부실채권 정리, 파산 후 생계부담 완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 중기중앙회, 협동조합학회 가입



(53·사진)이 학회 부회장으로 위촉됐다고 11일 밝혔다.

협동조합에 관한 이론과 실제 연구 등을 목적으로 1982년 설립된 협동조합학회는 대학교수, 연구원, 협동조합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소속된 학술단체다. 단체인원으로 농업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주요 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b>발명특허증</b> 	<b>웰딩커플러 제품</b> 	<b>연결부 단면도</b> 
<b>용접된 제품사진</b> 	<b>용접부 단면도</b> 	<b>인장강도성적서</b> 

## 철근 웰딩커플러 전국시도대리점 모집

- 제 품 : 발명특허 제10-1906921호(2018.10.4등록) 철근 용접합 타입 커플러 (국제특허 PCT출원중)
- 특 징 : 콘크리트 건물의 내진설계용으로 수직,수평 연결이 용이하고 견고해서 지진후 건물의 전단응력지지로 무너짐이 없다.
- 단 가 : 개당 1,000원 전후예상
- 지 역 : 서울, 경기 각 3개업체, 광역시도 각1개업체
- 특 혜 :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향후 20년간 부여
- 가입비 : 3억원 (기술인수 및 투자상담 환영)

**Welding Coupler Co., Ltd.**  
**웰딩커플러(주)**  
대표이사 **황영태**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934번길 84  
TEL/FAX : (051) 991-2806  
Mobile : 010-5330-2806  
E-mail : hyt1110@nate.com